

북한의 기억의 정치와 푸에블로호 호명*

이신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북한이 푸에블로호 사건을 반미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반미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었다.

이 연구는 북한이 1968년 사건 발생 이후 20여 년간 부각시키지 않았던 푸에블로호를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반미 교육의 소재로 활용한 목적과 배경,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북한의 푸에블로호 호명은 문학예술 분야에서 시작되어, 실제적인 물건으로서 푸에블로호 전시, 선군정치와 일원화 그리고 전승기념관 전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푸에블로호 호명은 단순히 반미 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김정일 체제의 위기 타개 및 정당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1990년대 김정일 체제의 등장 시기 직면했던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북한 내부의 식량난 등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 타개와 체제 정당화의 수단으로 푸에블로호를 소재로 한 반미 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당시 푸에블로호 교육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일원화되면서 대미 승리 인식을 더욱 공고화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 푸에블로호를 활용한 북한의 기억 정치의 일면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표면적으로는 반미 교육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푸에블로호 사건이 북한의 대미 인식과 협상전략에 미친 영향”(북한대학원대학교, 2013) 제4장 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의 소재로 활용하였지만, 그 내면에는 김정일 체제 유지라는 국내 정치의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 과거의 기억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북한, 푸에블로호, 푸에블로호 사건, 대미 승리, 기억의 정치, 반미

1. 문제의 제기

북한이 푸에블로호(USS Pueblo)를 주민들에 대한 반미 교육의 소재(素材)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북한에게 푸에블로호 사건은 6·25전쟁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매우 유용한 반미 소재가 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사죄문’¹⁾과 푸에블로호라는 ‘전리품’을 가지고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대미 승리’의 증거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반미 교육의 소재로 활용한다고 하는 점 이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북한이 과연 언제부터, 어떠한 배경과 목적에서,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푸에블로호를 반미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통해 반미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당연시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연구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다.

1) 북한은 1968년 12월 23일 미국 정부 대표로부터 받은 문서를 “푸에블로호 승무원 송환관련 미국의 사죄문”이라고 부르고 있다. 『로동신문』, 1968년 12월 24일.

지금까지 이루어진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연구들 역시 푸에블로호를 통한 반미 교육에 대한 논의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다. 기존의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건 자체에 대한 논의이며, 다른 하나는 사건의 영향에 대한 논의였다.²⁾ 푸에블로호 사건 자체에 관한 논의들에서는 푸에블로호의 탄생부터 수행 임무, 나포 과정, 협상 전개와 종결의 전 과정과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 동기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해당된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미국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³⁾ 푸에블로호 사건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미국의 위기관리 정책, 나포로 인한 남·북·미 3국 관계 변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두 개의 연구 범주 외에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의 회고록이 여러 편 출간되었다. 회고록은 연구서라고 할 수는 없으나 나포에서부터 송환까지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어 연구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Lloyd Bucher, *Bucher: My Story*(Garden City, N.Y.: Doubleday, 1970); Edward R. Murphy, *Second in Command*(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1) 등이 있다. 국내에 번역서로 돈 크로포드(Don Crawford), 『북한 335일』(서울: 서광문화사, 1970)이 있다.

3) 푸에블로호 사건 자체에 대한 연구로는 Mitchell B. Lerner, *The Pueblo incident: a spy 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 policy*(Lawrence, Kan.: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2); Narushige Michishita, *North Korea's Military-Diplomatic Campaigns, 1966~2008*(London: Routledge, 2010); Richard A. Mobley, *Flash Point North Korea: The Pueblo and EC-121 Crisis*(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3); Ed Brandt, *The Last Voyage of USS Pueblo*(New York: Norton Company, 1969) 등이 있다.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미국 우드로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의 연구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 연구로는 Mitchell B. Lerner, "Mostly Propaganda in nature: Kim Il Sung, the Juche Ideology, and the Second Korea War," *Working paper* #3(Dec. 2010); Sergey S. Radchenko, "The Soviet Union and the North Korean Seizure of the USS Pueblo: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 Working Paper* #47(Jul. 2011); Bernd Schaefer,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1972," *CWIHP Working Paper* #44(Oct. 2004) 등이 있다.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두 번째 범주에 해당된다.⁴⁾ 기존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연구에서 이 사건이 북한에 미친 영향, 또는 북한이 이 사건을 반미 소재로써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푸에블로호 사건이 약소국 북한의 강대국 미국에 대한 도발 행위이며, 11개월 동안 북·미 양국이 협상을 지속했고, 사건이 북한의 ‘승리’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미국뿐 아니라 북한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1999년부터 푸에블로호를 대동강에 전시하면서 1968년에 발생했던 사건을 현재로 호명(呼名)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에게 푸에블로호 사건은 어떤 의미이며, 북한은 이 사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어떻게 반미에 활용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푸에블로호를 단순히 반미 교육의 소재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 북한이 언제부터, 어떤 목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푸에블로호를 활용하였는가? 그리고 이것이 김정일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기억의 정치와 푸에블로호 호명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4) 푸에블로호 사건과 그 영향에 주목한 연구들로는 홍석률, “1968년 푸에블로 사건과 남한·북한·미국의 삼각관계,” 『한국사연구』, 제113호(2001), 179~208쪽; 류길재, “1960년대 말 북한의 도발과 한미관계의 균열,” 『박정희시대 한미관계』(서울: 백산서당, 2009), 185~242쪽; 정성윤,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미국의 위기정책결정”(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임재학,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요인 분석: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등이 있다.

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런 연구 목적을 위해 2절에서는 기억의 정치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한에게 푸에블로호 사건이 대미 승리의 기억으로써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1990년대 김정일 체제의 등장과 함께 푸에블로호가 호명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과거에서 현재로 호명하는 과정을 시기와 수단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5절은 이 논의의 결론이다.

2. 기억의 정치와 푸에블로호 사건

1) 기억의 정치

기억의 정치란 무엇인가? 학자들에 따라 이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기억의 정치를 기억의 조작, 정치적 신화의 창조와 같은 것⁵⁾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특정한 사건에 대해 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과 투쟁의 양상을 기억의 정치라 하기도 한다.⁶⁾ 그러나 이들의 기억의 정치에 대한 개념에서 주요하게 포함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현재 지배자들의 관여와 조작, 그리고 활용 등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기억과 정치의 밀접

5) 허버트 허시(Herbert Hirsch),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강성현 옮김(서울: 책세상, 2009).

6) 김민환,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서울: 문화과학사, 2003), 399쪽.

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억의 정치에 대한 하비 케이(Harvey J. Kaye)의 설명은 더욱 명료하다. 하비 케이는 지배자들이 피지배자에 대한 설득의 수단으로 기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는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에게 순종과 동의를 얻으려 할 때 가장 확실하고 나은 방법은 힘과 강제가 아니고 가능한 많은 피지배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지배자들에게 가급적이면 현존하는 질서를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피지배자들에게 납득시킴으로써 지배하는 방법이며, 이때 피지배자에 대한 설득의 수단으로 기억이 이용된다고 하였다.⁷⁾

지배자들은 정책의 당위성을 입증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불러오기도 한다. 특히 상징적 과업(symbolic performance)을 통해 사건을 호명하곤 한다.⁸⁾ 상징적 과업의 예로는 정치 지도자의 커뮤니케이션, 기념물, 기념일 등을 들 수 있다. 정치 지도자에 의한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역사, 용기, 국가의 과거 위대성에 대한 호소 등의 형태를 취한다. 정부가 기념물을 건축하거나, 공공 퍼레이드를 행하는 것, 또는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그 정당성을 고양하기 위한 상징적 과업인 것이다.⁹⁾

그렇다면 설득의 수단으로 어떤 기억을 불러오는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호명할 것인가는 대체로 그것을 정하는 정치가들의 손에 달려 있다. 지배자(정치가)들은 필요에 따라 집단의 기억을 역사라는 이름으로 조작하고, 변신시킨다. 북한같이 폐쇄된 사회, 자유 언론 및

7) 하비 케이(Harvey J. Kaye), 『과거의 힘: 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 오인영 옮김 (서울: 삼인, 2004), 105, 108쪽.

8) 최명·김용호, 『비교정치학서설』, 전정판(서울: 법문사, 1993), 314~321쪽.

9) 위의 책, 322쪽.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정부가 불러온 기억은 더욱더 인위적이며 정책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지배자들이 불러오는 기억의 호명은 현재와 관련이 있다. 사회학의 집단 기억 연구 중 하나인 ‘현재주의’에 따르면 과거의 기억과 이미지는 현재의 필요에 따라 현재에 만들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 기억과 이미지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이 현재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가 아니라 현재의 관심과 필요가 어떤 구조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였다.¹⁰⁾

과거에서 호명되는 기억이 되기에는 적어도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첫째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호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는, 호명되는 기억을 다수가 공유하여야 한다. 정책 결정자 혼자만 알고 있는 기억은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다수가 그 사건을 확실한 승리(또는 패배이든)로 공유하는 기억이어야 한다. 셋째는, 현재의 상황을 다수가 과거의 상황과 같거나 최소한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유사성이 높을수록 호명되어질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넷째는 호명되는 기억이 승리였든 패배의 기억이든 확실하고 명확한 사례이어야 한다.

호명된 기억은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기억을 재구성한 후에는 이것을 현재의 구성원들에게 주입하는 동원 작업이 필요하다. 대부분 이 작업은 승리를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 결정자들의 몫이다. 정책 결정자들, 또는 국민들은 유사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과거의 경험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 현재 직면한 상황이

10) 제프리 K. 올릭(Jeffrey K. Olick), 『기억의 지도』, 강경이 옮김(서울: 옥당, 2011), 22쪽.

과거와 같게 느껴진다면 과거의 경험을 불러내게 된다. 이렇게 기억의 호명은 일정한 조건과 방법으로 만들어진다.

기억, 특히 집단 기억은 호명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화되고 구조화된다. 기억을 불러내고,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기억의 매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¹¹⁾ 기억 매체에는 박물관, 기념관, 기념비, 기념 일, 학교, 영화, 역사서, 축제 등 다양하다.

북한식 기억의 정치의 상징적 테마는 항일유격대일 것이다. 이는 김일성의 업적이며, 태생적으로 제국주의 타도를 부르짖던 북한의 존재 정당성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59년 유격대원들의 회상기 출판을 시작으로 항일 유격대를 불러왔다. 종파사건을 통해 내부적으로 정치적 우위를 확보한 김일성은 빨치산 회상기를 통해 북한 사회에 항일 유격대의 기억을 널리 퍼지게 하였다. 사건의 호명이 승리한 사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패배의 사건도 호명된다. 북한이 미국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신천 대학살 사건’이 그런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대미 관계에서 불러오는 기억의 소재로는 무엇이 있을까? 북한의 대미 관계 소재로 6·25전쟁이나 푸에블로호만한 것이 있을까? 특히 푸에블로호 사건은 6·25전쟁 이후 북한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했던 첫 번째 사건이었다.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무엇보다 북한이 나포한 ‘전리품’으로 푸에블로호가 현재 평양에 전시되고 있다.

11) 강선주, “미국 교과서의 1,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 기억 만들기,” 『기억과 전쟁』(서울: 휴머니스트, 2009), 61쪽.

2) 대미 ‘승리’의 기억으로서 푸에블로호 사건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의 정보수집함이었다. 당시 북한은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푸에블로호를 나포했었다.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었지만, 북한과 미국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결국 12월 23일 83명의 승무원만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배는 돌려주지 않고 북한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푸에블로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외견상 이 사건은 영해 침범과 억류, 그리고 송환으로 이어지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6·25전쟁으로 형성된 북한의 대미 인식을 변화시킨 중대한 사건(Critical event)이자 북·미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킨 변곡점(變曲點)으로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북한은 푸에블로호 사건 이전까지 소극적이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대미 승리 인식을 갖고 있었다. 비록 김일성이 1953년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한다”¹²⁾라는 발표를 통해 일찌감치 전쟁을 북한의 ‘승리’로 규정하였지만, 전쟁을 도발했으면서도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북한이 전쟁을 승리로 평가하는 것은 온전치 못한, 자의적 승리일 뿐이었다.

이런 북한에게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은 부족했던 승리 인식을 충족시켜준 사건이었다. 푸에블로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미관계는 6·25전쟁을 통해 형성된 적대적 관계가 단조롭게 지속되고 있었

12) 김일성,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한다-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470호(1953년 7월 27일),” 『김일성 저작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521쪽.

다. 북한과 미국 간에 정부 수준의 공식적인 접촉은 전무하였다. 예외적으로 정전협정에 의해 탄생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로 약칭)에서 공산군(북한·중국) 측과 유엔군 측의 일원으로 만나는 것이 유일한 접촉 창구였다. 북한은 군정위 회의장에서 미국을 상대로 정치선전 공세를 수시로 전개했지만, 미국은 북한을 무시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군정위는 정전협정에서 규정한 군사 문제에 한정된 회담이었다. 미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엔의 결의로 한반도의 합법 정부는 남한뿐이었고,¹³⁾ 북한은 6·25전쟁의 침략자로 낙인 찍혔었기 때문이었다.¹⁴⁾ 그러나 6·25전쟁 이후 지속되었던 북·미관계의 ‘단조로움’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푸에블로호 사건이었다. 푸에블로호 사건을 통해 북한은 건국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을 성사시켰다. 특히 공고하게 보이던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미국과의 양자 비밀 회담을 진행하게 되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시종일관 무시했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었지만 당시 진행 중이던 베트남 전쟁과 억류당한 승무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을 접고 북한과의 협상을 선택했다.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공산군의 일원으로 지속되던 북·미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비록 북한과 미국의 군정위 수석대표 간 회담이었지만 이들은 양국

13)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뿐(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이라고 결의했다. “대한민국 승인과 외군철수에 관한 결의문(유엔총회 1948년 12월 12일자 결의 제195호-III),” 『유엔과 한국문제』(서울: 신명문화사, 1961), 6~9쪽.

14) 1950년 6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6·25전쟁의 ‘침략국’으로 결정했다. “한국군사원조에 관한 결의문(안전보장이사회 1950년 6월 27일자 결의 S/1511호),” 위의 책, 166~167쪽.

정부를 대표하였다. 양국은 11개월 동안 29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 결과 미국은 승무원만 송환받았다. 푸에블로호를 비롯한 장비는 반환받지 못한 채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미국 대표는 승무원들을 송환받기 위해 북한이 제시한 문서에 ‘미합중국 정부 대표의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문서에는 미국이 푸에블로호의 간첩 행위를 인정하고 북한 당국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함과 더불어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¹⁵⁾ 북한은 이 문서를 미국의 ‘사죄문’이라고 선전하며, 정전협정에 이어 ‘제2의 항복문서’라고 주장한다. 북한에게 6·25전쟁은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승리’이고 푸에블로호 사건은 ‘계속된 승리’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3. 김정일 체제의 등장과 푸에블로호 호명

북한은 푸에블로호 사건이 자신들의 ‘승리’로 끝난 이후 이 사건을 반미 선전선동에 적극 활용하였다. 그러나 『로동신문』 지면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보도는 1969년 4월 15일 북한의 미국 해군 EC-121 정찰기 격추 이후 사라진다.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 자리는 EC-121 사건 기사가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1969년 6월 25일 북한이 6·25전쟁 개전일부터 정전협정 조인일까지 ‘반미공동투쟁월간’으로 선정하면서 사라진다. 소재적 가치에서 푸에블로호는 더 이상 부각되지 않는다.

15) 북한은 이 한 장의 문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호칭을 열한 번 명시하였다. 그리고 ‘미합중국 정부’를 세 번 직접 사용한 것을 비롯해 ‘미국 합선’, ‘미 육군’ 등 미국을 지칭하는 용어를 총 여덟 번 사용하였다.

이후 푸에블로호가 『로동신문』을 통해 등장하는 것은 1970년 1월 26일 나포 2주년을 기념하는 기사에서였다.¹⁶⁾ 일본 군사평론가의 글이라면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제하의 글이 게재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속되지 못하고 한동안 중단되다 1975년 8월 북한을 방문한 중국 예술단이 원산의 푸에블로호 나포 부대를 방문했다는 기사에서 다시 등장한다.¹⁷⁾ 푸에블로호에 대한 보도는 1976년 8월 22일 판문점 사건 당시 일본 사회계 인사들의 반향이라며 푸에블로호 사건과 EC-121사건을 거론한 이후 1990년 이전까지는 찾아보기 힘들다.¹⁸⁾ 이후 푸에블로호는 북한 내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나포 이후 푸에블로호는 공개되지 않고 관리되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별다른 행사도 개최하지 않았다. 푸에블로호 사건 직후 한동안 이 사건을 통해 대미 승리의 공교화를 추진하였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푸에블로호 사건이 사건 직후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당시 국제 상황과 북한의 대내 정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제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직접적인 요인이었을 것이다. 1969년 7월 닉슨 독트린과 이어서 전개되는 미·중 화해 분위기는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을 완화시키고 있었다. 미국과 중국의 화해는 남북한의 대화를 유도하고 있었다. 미국의 대중(對中) 접근을 미국이 백기를 들고 왔다고 선전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긴박한 사안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16) 『로동신문』, 1970년 1월 26일.

17) 『로동신문』, 1975년 8월 20일.

18) 『로동신문』, 1976년 8월 22일.

대내적 측면에서는 김일성 유일지도체제의 형성과 강화, 항일유격대 기억의 강조 분위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유일지도체제의 공고화와 항일유격대 따라 배우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푸에블로호 사건까지 굳이 동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대내외적 측면에서 당시 정책 결정자에게 푸에블로호 사건의 동원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푸에블로호를 역사의 기억에서 현재로 불러온 것은 김정일이었다. 시기적으로는 1990년대이다. 원산항에 격리 보관되어 있던 푸에블로호를 1995년부터 관광용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전시장소도 평양 대동강으로 옮겼다. 푸에블로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와 소설 등 문학예술 작품을 제작하여 푸에블로호 불러오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왜 푸에블로호를 현재로 불러왔을까? 이것은 김일성의 사망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 지도자 김정일의 등장을 상호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90년을 전후하여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 연방이 붕괴되었다. 남한의 북방 외교는 북한을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고립되게 하였다.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어 미국의 영변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이 거론되었고,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였다. 이어 닥친 자연재해는 북한을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은 이 당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지난 세기 90년대는 우리 조국과 인민의 자주성을 고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운명적인 시기였다. 미제를 괴수로 한 제국주의 련합세력은 우리나라가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라고 떠들면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정치, 군사적 압력과

경제봉쇄책동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였으며 몇 해째 계속 된 자연재해는 우리 인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¹⁹⁾

당시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김정일은 사회주의 재생·재건 전략으로 ‘민중 중심의 사회주의 건설 전략’을 추진했다고 한다.²⁰⁾ 그리고 민중 중심의 재생·재건 전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민중들에게 당시 북한의 시련 상황을 합리화시켜 줄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을까? 합리적인 이유를 통해 체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자신의 지도자로서 이미지도 공고화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했을 것이다. 주체사상이든 선군정치든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처음부터 적을 밖에서부터 찾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지배체제의 정당성을 위해 ‘남조선’과 ‘미제국주의자’를 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²¹⁾ 이런 배경에서 김정일에게 이데올로기로서 반미의 강화가 필요했을 것이다.²²⁾

왓킨스(Frederick Mundell Watkins)는 근대 이데올로기의 특징에 대해 지향하는 목표는 전형적으로 유토피아적이며 우리와 그들, 즉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개념을 토대로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했다. 특히 적과 친구의 이분법적인 사고는 그 사회에 존재하는

19) 리성철·리만렬·강설경,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성이 강한 사회주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2), 22쪽.

20) 조성철, 『김정일 장군의 사회주의 재생재건전략』(평양: 평양출판사, 2001), 135쪽.

21) 김영수, “국가이데올로기의 변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북한의 국가 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울, 2001), 81쪽.

22) 임동원은 이 무렵 북한 당국이 공산권 붕괴의 충격과 자유화 바람의 유입을 막기 위한 일종의 ‘대증(對症) 요법’으로 ‘통일 열풍’을 조성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임동원, 『피스메이커』(서울: 중앙북스, 2008), 196쪽.

여러 가지 의견을 모두 무시해 버리고 흑백의 논리로써 취급하게 한다는 것이다.²³⁾ 이데올로기는 사물을 단순화시키고 선과 악, 친구(友)와 적(敵)을 명확히 구분시키기 때문에 대중을 통합시키는 목적에 매우 적절한 수단이 된다.²⁴⁾

북한과 같이 폐쇄적이고 사상과 언론이 통제되는 사회에 왓킨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을 적용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김정일은 자신의 등장 과정에 이데올로기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 건국 이후 강조해오던 반미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로써 체제 내적으로 사상의 통제와 친구와 적의 이분법적 구도를 조성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사망,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어지는 1차 북핵 위기는 김정일에게 새로운 대책을 요구했던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반미였고 이런 구조적 배경은 푸에블로호를 다시 등장시키게 하였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많은 사건 중에서 왜 푸에블로호를 불러왔을까? 그것은 푸에블로호가 가지는 반미 소재로서의 유용성 때문이다.

푸에블로호가 가지는 반미 소재로서의 첫 번째 유용성은 푸에블로호가 미국의 침략성과 북한의 승리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사과문’이 있고, 북한이 몰수한 증거물으로써 배가 있다. 반미 소재로서 이보다 훌륭한 소재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푸에블로호 사건이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연결할 수 있는 데 유용함이 있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100여 년 전 제너럴

23) 프레드릭 M. 왓킨스(Frederick M. Watkins), 『이데올로기의 시대』, 이흥구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1997), 제3판, 42~44쪽.

24) 위의 책, 230쪽.

셔먼호의 후예들이라고 일체화시켰다.²⁵⁾ 북한은 이 사건을 김일성의 증조할아버지가 주도했다고 역사를 조작하였다. 결국 김일성의 조상이 막은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동일시하였다. 일종의 역사 동일시를 위한 역사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다.²⁶⁾ 이것은 10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계속된 승리’를 창조하는 데 중요한 소재인 것이다.

세 번째는 김정일의 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북한은 6·25전쟁을 미제에 대한 승리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김정일의 입장에서 전쟁 당시 10살 정도의 어린 아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 김정일은 만 26세로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형성 시기에 당 일꾼으로써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결국 시기적으로 김정일과 관련 있고, 활용면에서 유용했기에 푸에블로호 사건은 다시 현실로 불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김일성은 1937년 일제와의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한다.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의 역사적 의의에 “조선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 일본 놈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²⁷⁾라고 강조하였다. 작은 전투였지만 상징성을 강조한 것이었

25) 제너럴셔먼호는 조선과의 교역을 요구하면서 조선인들을 납치, 사격 발포 등 적대적 행위를 범하다 평양 감사 박규수에 의해 선원들이 전원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 5년 후인 1871년 미 해군이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신미양요의 원인이 되었다.

26) 북한의 고등중학교 2학년용 교과서에는 “대동강에 처박힌 ‘샤만 호’라는 제목의 단원이 있다. 이 교과서에는 샤만호의 조선침략 배경과 구체적 활동 등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격침도’라는 지도와 함께 잘 설명되어 있다. 교육도서출판사, 『조선력사(고등중학교 2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64~67쪽.

다. 보천보 전투가 김일성의 항일활동의 상징이 되었듯 김정일의 입장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은 보천보 전투와 성격이 같은 것이었다. 비록 대규모 전투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사건은 곧 상징성을 갖게 되었고, 북한은 반제·반미 세력의 전설이자 신화의 존재가 된 것이다.

푸에블로호 사건의 호명은 대미 협상 측면에서도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과 미국은 1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정부 간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북·미 협상의 상황에서 푸에블로호는 협상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북한은 미국의 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대내적으로 단결을 도모하고, 대미 대결에서 미국을 자극함과 아울러 미국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수시로 푸에블로호의 미국 반환을 언급함으로써 협상의 큰 카드는 아니지만 유용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²⁸⁾

이처럼 김정일이 푸에블로호 사건을 새롭게 들고 나온 것은 변화된 환경 속에서 반미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대미 협상에서 북한의 상대적 우위를 만들고,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여러 목적이 있었을

27) 황만청, 『항일무장투쟁이야기: 보천보의 메아리』(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7), 51쪽.

28) 북한에게 푸에블로호가 대미 대결의 전리품이라면 미국에게는 패배의 증거라 할 수 있다. 패전국에게 전리품은 아픈 상처의 의미가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통해 ‘1968년의 악몽’을 치유하고 싶을 것이다. 이 점에서 푸에블로호가 북한의 대미 협상 카드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패전국의 적극적 전리품 반환 요구 사례를 소개하면, 한국 문화재청은 1871년 신미양요 당시 미국이 전리품으로 빼앗아간 ‘어재연 장군기’를 136년 만에 미 해군으로부터 입차해 한국에 전시하면서 깃발의 영구 반환을 미국에 요구했다. 러시아는 1904년 러일전쟁 당시 인천 앞바다에서 패한 러시아 군함 ‘바랴크호’의 깃발(일본의 전리품으로 인천 박물관 보관)의 영구 반환을 한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동아일보』, 2007년 10월 23일; 『조선일보』, 2012년 10월 17일.

것이다. 그리고 그 내막에는 자신과 무관하지 않은 사건이자, 자신의 치적이 배어 있는 사건이며, 궁극적으로 대미 승리의 상징으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다. 김정일에게 기억의 매개체로써 대미 승리의 상징인 푸에블로호는 대단히 효과적인 소재였던 것이다.

4. 푸에블로호 호명의 전개 과정

북한에서 푸에블로호가 호명되는 과정은 시기와 수단을 중심으로 4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²⁹⁾ 1단계는 소설과 영화 등 문학예술 분야에서 푸에블로호 호명을 통해 사회 전 분야에 푸에블로호의 기억을 되살리는 단계이다. 2단계는 기억의 사실적 증거로 실체적 물건인 푸에블로호를 전시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사회적으로 확산된 푸에블로호의 기억과 역사적 사실성이 선군정치의 근거로 활용되면서 선군정치와 일원화 되는 과정이다. 4단계는 김정일에 의해 푸에블로호를 공식 기억의 공간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하 ‘전승기념관’으로 약칭)에 이동 전시하면서 대미 승리를 더욱 공고화하는 단계이다.

1) 1단계: 문학예술 분야의 푸에블로호 호명

북한에서 문학예술의 역할은 당의 지침을 대중에게 전달해주는 전

29) 물론 푸에블로호 호명의 과정이 4단계로 엄밀하고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4단계가 북한의 구체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없다. 이것은 필자의 자의적인 구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또 수단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 점에서 호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데 의미 있는 구분이라 생각한다.

달자이자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푸에블로호를 소재로 한 소설, 영화 등이 발표되면서 푸에블로호는 기억 속에서 현재로 불러오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문학 예술 분야에서 푸에블로호를 처음 호명하기 시작하였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북한의 집단 기억(collective memory)이다. 이 기억이 김정일 개인만의 기억이라면 푸에블로호 사건은 호명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체제가 등장하는 1990년대에서 거슬러 올라간다 해도 푸에블로호 사건이 일어난 1968년까지는 20년이 조금 더 지난 시간이다. 많은 인민들은 사건을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었고, 또 많은 인민들은 교과서 등 간접적 수단을 통해 사건을 전수 받았을 것이다. 과거의 기억을 불러오는 매개체로써 문학예술의 효과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할 수 있다.

1990년대 푸에블로호를 소재로 한 문학예술 분야의 첫 작품은 영화에서 나왔다. 1992년 10월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된 예술영화 <대결>이다.³⁰⁾ 이 영화는 1968년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만들었다. 기록영화와 달리 예술영화로서 허구(fiction)적 성격이 일정 부분 가미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푸에블로호 사건의 발생과 북한의 대응자세를 엿볼 수 있다.

<대결>은 전형적인 반미 영화라 할 수 있다. 영화는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으로 동해에서 미국의 무력시위가 전개되고 끝날 때

30) 북한에서 ‘예술영화’는 “객관적인 현실을 극적 방식으로 보여주는 영화다. 곧 인간과 그 생활을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기본 형상수단으로 하여 형상적으로 반영하는 영화예술의 기본 종류의 하나”이며, ‘기록영화’란 “자연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현상, 사건과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정의되어 있다.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194, 1692쪽.

까지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대결은 무력에 의한 대결이 아니라 사상 대 사상의 대결이었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북한은 사상적으로 우세한 나라로 그려지며, 결국 사상적으로 우세한 북한이 승리했다는 주장이다.

푸에블로호를 소재로 한 다른 영화로는 <미제 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말로>이다. 이 영화는 기록영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20분 분량의 이 영화는 1968년 푸에블로호가 나포되던 날부터 12월 23일 승무원들이 송환되기까지의 전 기간을 당시 기록영화를 이용하여 다큐멘터리 식으로 제작한 것이다. 2001년 이후 북한은 매년 1월 23일 즈음한 시기와 북·미관계 대결 시기, 정전 기념일 등에 이 영화를 조선중앙TV로 상영하고 있다.³¹⁾

소설로는 1996년 『함장의 웃음』이라는 ‘단편실화소설’이 발표되었다.³²⁾ 2000년에는 단편소설 『평양의 눈보라』가 발표되었다.³³⁾

『함장의 웃음』은 실화소설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매우 사실적으로 쓰여 있다. 1995년 원산항에 푸에블로호를 공개한 직후 미국 CNN의 마이크 치노이(Mike Chinoy) 베이징 지국장의 푸에블로호 취재를 소재로 하고 있다. 소설에는 치노이 지국장이 한 말이라고 소개되는 장면이 있다.

31) 현재 접근 가능한 2005년 이후 조선중앙TV 편성표에서 확인 결과, 2005년 이후 매년 1월 23일 전후 방송되었다. 또 2009년도에는 3월 10일, 2010년도에는 3월, 9월 11월에도 보도되었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unibook.unikorea.go.kr>, 2012년 8월 1일 검색).

32) 조수희, “함장의 웃음,” 『조선문학』, 제1호(1996), 47~54쪽.

33) 전인광, “평양의 눈보라,” 『조선문학』, 제11호(2000), 45~55쪽. 이 소설은 2006년 『통일문학』에 게재되었다. 전인광, “평양의 눈보라,” 『통일문학』, 제4호(2006), 155~185쪽.

우리가 오늘밤 위성중계로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국민들은 좋든 싫든 이 ‘푸에블로’호는 무장간첩선이며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나는 오늘 ‘조미회담’이 왜 전진을 가져오지 않는지 여기 와서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회담이란 상대방에 대한 신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해양탐색선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간첩임무를 주는 것처럼 미국을 대표하여 사죄한다면서 선원들을 데려간 이후에는 아니라는 식으로 뒤집으니 누가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믿겠습니까?³⁴⁾

CNN 지국장이 그와 같은 말을 진짜로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보인다.³⁵⁾ 이 소설의 제목에서 말하는 함장은 푸에블로호의 책임자인 장규정 소좌를 말한다. 흥미로운 점은 장규정이 미군의 신천 대학살로 부모를 잃은 자였고 성장하여 푸에블로호의 북한 함장이 되어 미국 함장이 쓰던 방을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푸에블로호 사건을 소재로 한 또 하나의 소설이 『평양의 눈보라』이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북한 외국어대학을 나와 영어실력이 뛰어나

34) 조수희, “함장의 웃음,” 『조선문학』, 53쪽.

35) CNN의 푸에블로호 취재는 사실이였다. CNN은 취재 결과를 1995년 4월 27일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키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8년 나포한 미 함정 푸에블로호를 전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국 기자로는 처음으로 푸에블로호에 승선이 허용된 CNN의 마이크 치노이는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적 미국에 대한 승리를 기리는 성스러운 기념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푸에블로호의 대미 반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짐은 없지만 미국인들의 승선과 관람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향신문』, 1995년 4월 29일.

<표 1> 푸에블로호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과 영화

구분	제목	게재 잡지/제작사(연도)
소설	함장의 웃음	『조선문학』, 1996년 1월호
소설	평양의 눈보라	『조선문학』, 2000년 11월호
수필	‘푸에블로’호의 갑판 위에서	『청년문학』, 2002년 1호
혁명 일화	‘푸에블로’호 사건과 웃도안	『인민교육』, 2005년 제6호
동시	물에 묶인 ‘푸에블로’호	『아동문학』 2001년 제8호
영화	기록영화 - 미제침략군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영어 더빙, 14분)	조선인민군 군사과학교육 영화촬영소(1999년)
	기록영화 -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말로(20분)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록영화촬영소(2000년 4월)
	예술영화-대결(74분)	조선 2·8예술영화촬영소(1992년 10월)
	기록영화-푸에블로호 견학/관광 관람자용 선전용 기록영화(2분)	미확인

나포 당시 승무원 관리를 위해 파견 나왔던 군인이다. 그가 부하들을 이끌고 대동강의 푸에블로호 관광을 와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다. 그 회상 속에는 당시 승무원들의 동성연애, 백인과 흑인의 갈등, 금전에 대한 욕심, 신체적 냄새 등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불결한 냄새’를 맡았다고 그려진다. 그는 푸에블로호 승무원들을 통하여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인권과 자유, 박해를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은 거대한 시궁창이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청년들이 이 배를 돌아보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성과 그 추함을 다 알고가기를 바라며, 앞서 간 세대는 그들에게 꼭 말해주어야 할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설은 주인공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총과 칼로 미국과 경쟁하는 것을 넘어 사상의 전쟁, 미국의 ‘더러운 사상’의 북한 침투를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은 푸에블로호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과 영화를 일부 정리

한 것이다. 이들 문학작품의 공통적인 내용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미국과 비교할 때 북한 체제가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점이다.

문학예술 분야에서 푸에블로호를 활용한 소설과 영화의 등장은 사회적으로 잊히던 푸에블로호의 기억을 현재로 불러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 2단계: 실체적 물건의 활용-푸에블로호 전시

1단계 문학예술 분야에 이어 푸에블로호 호명의 2단계는 푸에블로호 자체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과거에 대한 증거로서 실재(實在)하는 물건은 과거의 기억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회상의 기능을 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신뢰성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푸에블로호는 실재하는 증거로서 사실성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항복의 상징성을 함께 줄 수 있는 기억의 매개체였다.

기억은 매개체 없이는 물질적·공간적 현실에 정박하지 못함으로 객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없다. 전쟁 기억을 포함하여 모든 기억은 과거의 ‘재생’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의 자리에 ‘재현’하는 행위이다. 기억 행위를 통해 현재의 삶은 의미를 획득하며 그것에 의해 기억은 다시 영향을 받는다.³⁶⁾

북한은 1995년 푸에블로호를 관람용도로 원산항에 처음 공개하였다. 이것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⁷⁾ 이전까지

36) 전진성, “트라우마의 귀환,” 『기억과 전쟁』, 40쪽.

37) 푸에블로호를 소재로 한 북한의 소설 『함장의 웃음』에는 1995년경 김정일이 원산항에 ‘방치’되어 있던 ‘노획물(푸에블로호 지칭)’을 ‘씩히지 말고 원산 앞바

푸에블로호는 군사적으로 통제된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었다.³⁸⁾

푸에블로호는 1999년부터는 평양의 대동강으로 자리를 옮겨 전시되고 있다.³⁹⁾ 북한이 대동강에 푸에블로호를 옮겨놓은 것도 김정일의 지시라고 한다. 김일성은 1998년 12월초 반미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해 지시하면서, 인민군대가 나포한 푸에블로호를 가지고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을 잘할 수 있다고 일깨워 주면서 배를 가져다 놓을 위치까지 일일이 지정해주었다고 한다.⁴⁰⁾ 대동강은 원산보다 지리적 접근성이 좋다.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람도 용이하다. 북한의 심장인 평양에 반미 승리의 상징을 전시하는 것 자체가 반미의 홍보와 교육이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평양의 대동강은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서먼호를 평양 민중이 불태워버린 곳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제2의 제

다에 갖다놓고 관광용으로 쓰면서 미제 침략자들의 침략적 본성을 폭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조수희, “함장의 웃음,” 54쪽. 북한에서 소설 창작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따라 비록 소설이지만 사실적으로 또는 사실에 가깝게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 소설은 ‘실화소설’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38) 재미교포 기자 김희중 씨가 북한 방문 후 르포 “내가 보낸 북한 20일”을 통해 원산에 간 일화를 소개한 부분이다. 김 기자는 원산 여행 중 안내자가 푸에블로호 나포에 대해 설명하자, 푸에블로호가 어디 보관되어 있느냐고 물었고, 안내자는 군사기밀이라고 답변했다고 하였다. 『동아일보』, 1974년 10월 4일. 나포 이후 북한 해군에서는 푸에블로호라는 원래 이름 대신 배가 나포된 날짜를 따서 ‘123호함’이라 부르고 있었다고 했다. 조수희, “함장의 웃음,” 48쪽.

39) 연합뉴스는 1999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가차 방북한 민주노총 방북단의 전언을 근거로 푸에블로호가 최근 평양 대동강의 축섬 옆 ‘충성의 다리’ 부근에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1999년 7월 12일에는 방북했던 로버트 토리첼리 미국 상원의원이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푸에블로호가 남포항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99년 8월 30일. 원산항에서 한반도 남쪽 공해상을 지나 남포항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40) 『로동신문』, 1999년 10월 27일.

너털서면호로 간주하고 있다. 푸에블로호가 제너털서면호의 후예라는 인식이다. 푸에블로호 사건은 북한의 반미인식을 증폭시킴과 함께 대미 승리 인식도 함께 주고 있다.

푸에블로호 나포 당시 푸에블로호에 올랐었던 북한 해병 중 한 명인 박인호는 2000년 당시 대좌 계급을 달고, 대동강 푸에블로호에서 해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해설에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고, 김정일이 푸에블로호를 대동강에 가져다 놓고 미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⁴¹⁾

북한 『로동신문』은 푸에블로호가 대동강으로 옮겨진 이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근로자, 인민군군인, 청소년학생 등 40여만 명과 외국인 약 7,000명이 참관했다고 밝혔다.⁴²⁾

북한은 사회주의 수도라는 평양과 대동강이라는 역사적 장소에 푸에블로호라는 실재적 증거를 전시함으로써 푸에블로호에게 미제에 대한 승리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인민들의 반미의식 고취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홍보 소재로 활용하였다.

3) 3단계: 선군정치와 일원화

푸에블로호 호명의 3단계는 푸에블로호의 기억이 김정일 선군정치로 연결되는 것이다. 북한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김정일 선군정치의 시작이라고 선전하면서 푸에블로호 사건과 대미 대결 그리고 북한의 승리와 선군정치를 같은 선상에서 재형성하였다.

41)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록영화촬영소 편집, <기록영화- 미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탈로(20분)>(평양: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록영화촬영소, 2000).

42) 『로동신문』, 2003년 1월 23일.

북한에서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7년 12월 12일 『로동신문』 정론에서 김정일의 통치행태를 “군을 혁명의 기둥으로 삼는 선군정치”로 집약하면서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 이후 1999년 2월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자신의 기본적인 정치방식’으로, 나아가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정치방식’으로 공식화하였다.⁴³⁾ 2001년 12월 15일 『로동신문』은 김정일이 “1995년 설날에 다박솔 중대를 현지 지도하는 것으로 부터 선군정치를 시작하였다”고 보도한바 있다.⁴⁴⁾ 그러나 이후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원을 점점 과거로 소급하고 있다.

2008년 2월 3일 『로동신문』은 “선군정치사의 갈피에 빛나는 불멸의 군사적 업적”이라는 개인필명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기사에는 “사람들은 ‘푸에블로’호 사건을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결속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선군령장 김정일 장군님께서 바치신 불철주야의 로고와 심혈을 다는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시는 것으로 부터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960년대 초로부터 60년대 말에 이르는 근 10년간 수백 개 단위의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여 인민군대에 대한 정치사상적령도와 군사적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를 튼튼히 쌓으셨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 정치군사실력이 가져온 열매였으며 선군정치실현의 전제로 되었다. 1960년대 초에 시작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 령도는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선군정치로 심화발전되어 선군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았다.⁴⁵⁾ (강조는 인용자)

43) 서훈, 『북한의 선군외교』(서울: 명인문화사, 2006), 75~76쪽.

44) 위의 책, 75~76쪽.

2009년 발간된 『광명백과사전』에도 선군정치와 푸에블로호 사건이 대단히 밀착된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를 시작하시면서 인민군대에 대한 정치적령도와 함께 군사작전지휘를 직접하시였다. …… 비범한 정치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작전적 지휘로 주체 57년 1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사건과 주체 58년 4월 미제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을 우리의 승리로 빛나게 결속하시였다.⁴⁶⁾

선군정치의 목적에 대해서는 “반제반미대결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며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데 있다”고 기술했다.⁴⁷⁾

김정일 사후 출간된 『위인 김정일』이라는 책에는 김정일의 공격정신과 기질이 과거 행적에 곳곳에 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그 예로 푸에블로호 사건과 EC-121 사건을 제시했다.⁴⁸⁾

이미 1960년대 벌써 세상을 들었다 놓은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와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때에 그이께서는 담력과 배짱이 강한 또 한 분의 백두산장군으로 명성을 날리시였다.⁴⁹⁾

45) 『로동신문』, 2008년 2월 3일.

46) 백과사전출판사, “제5장 선군정치,” 『광명백과사전』, 3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9), 182쪽.

47) 위의 책, 194쪽.

48) 외국문출판사, 『위인 김정일』(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13쪽.

49) 위의 책, 15쪽.

북한은 1990년대 중엽이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정립 체계화하여 혁명과 건설의 확고한 지침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문제를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던 시기였다고 기술하고 있다.⁵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은 선군의 기치 밑에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노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⁵¹⁾

북한은 선군정치를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정치방식”⁵²⁾이라고 선전한다. 냉전구도의 종결로 “종래의 쏘미 사이의 대결구도가 가장 치열한 조미대결전으로 바뀌게 되었다”⁵³⁾고 보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1990년대 이후 제국주의와의 대결을 위해 반드시 나타났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북·미 대결로 바꾼 국제환경에서 선군정치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 현대사에서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승리한 역사로 평가하고 있는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선군정치를 연관 시킴으로써 김정일 시대에 주창되기 시작한 선군정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이 과정에서 푸에블로호 사건을 김정일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항일혁명가로서의 김일성의 정통성에 비견될 수 있는 ‘조·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라는 새로운 정통성을 창조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

50) 리성철·리만렬·강설경,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성이 강한 사회주의』, 19쪽.

51) 위의 책, 22~23쪽.

52)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234쪽.

53) 위의 책, 12쪽.

인다.⁵⁴⁾

푸에블로호 사건은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시작이었고, 2000년 이후 본격화되는 선군정치 속에서 선군정치와 일체화되면서 기존의 평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과서 내용의 변화이다. 북한 교과서에 실린 푸에블로호 사건은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⁵⁵⁾

첫째, 2000년 이전에 출판된 교과서에는 대체로 이 사건을 미국과의 숙명적 대결을 강조하는 소재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한 사례로써 북한의 ‘리수복 영웅이야기’에 이 사건을 함께 소개하면서 가족이 대대로 미국과 대결하고 있고, 이것이 현 세대에게 부여된 숙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할아버지는 6·25전쟁을, 아버지는 푸에블로호 사건을, 오늘은 형님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결심을 가지고 조국 보위초소에 서 있다’는 것이다.⁵⁶⁾

그러나 2002년에 출판된 고등중학교 제5학년용 『공산주의 도덕』에는 제1장의 첫 편에 푸에블로호 사건을 민족적 자존심의 상징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민족은 흥하지만 그것을 버린 민족은 망한다.
…… 우리나라에 전쟁위험을 몰아왔던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 미제국

54) 전미영, “평양 한복판에 ‘미제문화’ 연주토록 한 북한의 모험,” 『통일한국』, 3월호(2008), 76쪽.

55) 국내 연구자로서 북한 교과서 연구는 다른 북한 연구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매우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2012년 기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소장된 북한 교과서는 1990년대 이후의 것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56)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고등중학교 제3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60쪽. 1995년판은 65쪽.

주의자들은 우리가 나포한 저들의 배를 당장 내놓지 않으면 원산을 폭격하겠다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니 하며 술한 침략 무력을 조선반도 주변으로 끌어들이었다. 미국의 압력과 위협공갈에 눌린 대국이라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하려고 하였다. …… 오늘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적 자존심은 그 어느 다른 민족들이 지닐 수 없는 최상의 민족적 자존심이다.⁵⁷⁾

1995년 출간된 같은 5학년용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에는 없던 내용이다. 교과서 내용 개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군정치의 공고화 과정에서 푸에블로호 사건도 단순한 대미 승리가 아닌 민족적 자존심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한편,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이 푸에블로호 나포일에 기념 행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북한은 1월 23일 별도의 기념행사는 아니지만 푸에블로호 관련 영화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하고 있다. 북한이 2000년 제작한 기록영화 <미제 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말로>는 이후 매년 1월 23일 무렵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2008년도 ‘반미공동투쟁월간’⁵⁸⁾에는 푸에블로호와 나포되는 승무원의 사진이 들어간 우표를 발행하였다.⁵⁹⁾ 국가가 발행하는 우표에도 푸에블로호 사건이 소재로 활용되면서 푸에블로호 사건은 단순한 대미 승리의 기억이 아니라 김정일 선군정치의 공고화 속에서 대미 승

57)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고등중학교 제5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3~4쪽.

58) 북한은 매년 6·25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를 ‘반미공동투쟁월간’으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다.

59) 『통일뉴스』, 2008년 5월 29일.

리의 상징으로 더욱 공고화되어갔다.

4) 4단계: 공식기억의 공간에 전시-전승기념관 전시

푸에블로호에 대한 호명이 김정일 시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푸에블로호는 활용되고 있다.

1999년부터 대동강에서 전시되던 푸에블로호가 2012년 11월 말 사라졌다.⁶⁰⁾ 이후 푸에블로호가 다시 나타난 것은 2013년 7월 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기념일에 전승기념관 재개관행사에서였다.⁶¹⁾ 북한의 보도매체들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푸에블로호를 전승기념관으로 옮겨 재공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⁶²⁾ 그리고 전승기념관 재개관일 이후 푸에블로호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며 부각시켰다. 조선중앙TV를 통해 6·25전쟁 참전 노병들이 푸에블로호를 참관하는 모습을 내보내 데 이어, 8월 7일에는 김정은이 한밤중에 푸에블로호를 참관하는 기록영화를 방영하기도 했다.⁶³⁾

김정은의 푸에블로호 이동전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 나라의 기념관 또는 박물관은 그 나라가 설정한 공식역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의 6·25전쟁 기념관이라고 할

60) “북 대동강변 푸에블로호 실종(?),” 『연합뉴스』, 2012년 11월 30일.

61) 김정은은 이 전승기념관 재개축 공사에 20차레나 현지 지도를 했고, 2013년 7월에는 평균 3.7일에 1회씩 현지 지도를 하는 등 일국의 지도자로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날 재개관식 행사에는 김정은과 중국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조선중앙TV,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빛내이시려>(2013.8.7, 방송).

62) 조선중앙TV,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빛내이시려>(2013.8.7, 방송).

63) 위의 방송.

수 있는 전승기념관은 6·25전쟁에 대한 북한의 입장, 시각, 생각을 반영한 공식 기억의 장소일 것이다. 김정일은 전승기념관을 “훌륭한 사상교양거점이며 승리의 전통교양의 중심지”라고 하였다.⁶⁴⁾ 이런 점에서 푸에블로호가 대동강의 전시장에서 전승기념관으로 장소를 옮긴 것은 푸에블로호에 대한 더욱 공고한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일은 푸에블로호를 대동강에 전시하면서 100여 년 전 제너럴 셔먼호를 상기시키며 장소의 상징성과 푸에블로호와 제너럴셔먼호의 동일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일은 이 배를 공식 역사의 공간에 전시함으로써 이는 대동강에서의 전시보다 확고한 대미 승리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대동강 전시가 미국의 계속적인 침략을 강조한다면, 전승기념관의 전시는 북한의 확고한 대미 승리에 무게를 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푸에블로호를 전승기념관에 전시함으로써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인민군대의 백전백승의 역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은 인민들에게 전승기념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를 통해 6·25전쟁에 이어 북한의 미국에 대한 ‘계속된 승리’를 선전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제너럴셔먼호를 격침시켰다고 주장하는 김일성의 증조부 김응우를 비롯해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일으로 이어지는 김씨 가문의 용맹함을 나타내고자 했을 것이다. 또 오늘날 북한에 닥친 어려움이 지도자의 문제라기보다는 6·25전쟁 때나 푸에블로호 사건 때와 같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이라고 선전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반미대결은 조선의

64) 위의 방송.

숙명이며, 반미 투쟁을 더욱더 전개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을 것이다. 대미 승리는 북한의 역사에서 당연시되는 역사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90년대 초 김정일에 의해 호명된 푸에블로호의 기억은 김정은에 의해서도 대미 승리 인식의 공고화를 목표로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북한이 1968년 발생했던 푸에블로호 나포라는 하나의 사건을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호명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의 기억의 정치의 한 단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북한에서 푸에블로호의 호명은 김정일 체제의 위기에 기인한 것이었다. 지배자들이 불러오는 기억은 현재와 관련이 있다. 김정일 체제가 등장하는 1990년대 초는 소련을 비롯해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는 시기였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일성의 사망과 식량난으로 체제가 어려움에 직면했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푸에블로호는 적과 친구의 이분법적인 사고를 강요하며 인민대중을 통합시키는 매우 유효적절한 소재였다.

둘째, 호명될 기억의 대상으로써 푸에블로호 사건은 충분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의 명확한 사과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지니고 있고, 전리품으로써 배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대미 승리의 기억이 될 수 있었다. 호명되는 시기도 사건 발생 이후 20여 년 밖에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셋째, 푸에블로호를 이용한 북한의 기억의 정치는 소재와 시기를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이것은 문학예술 분야, 실제한 물건의 전시, 선군정치의 소재로 활용, 전승기념관 전시의 단계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푸에블로호는 북한 주민들에게 반미 교육의 소재로 활용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북한 내부적으로 대미 승리 인식을 공고화시키는 단계로까지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푸에블로호 사건이라는 과거의 기억이 다양한 유용성을 지닌 이유로 현재로 호명되고, 표면적으로는 반미 교육의 소재로 활용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김정일 체제 유지의 정당화에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푸에블로호를 통한 북한의 반미 교육은 대미 승리를 더욱 공고화하는 단계로까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푸에블로호 사건에 대한 연구가 북한과 미국의 협상 과정이나 위기관리 등의 분야에 머물러 있던 것과 달리 푸에블로호가 국내 정치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기억의 정치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연구는 시도되지 못했다. 이를 테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전개되는 국가의 정치선전 혹은 교육화 과정과 푸에블로호 호명의 과정을 비교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푸에블로호 호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주민들의 반응과 수용 정도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기억의 정치와 푸에블로호 호명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제도주의에서 주장하는 제도의 개념에 따르면 미국과의 대결에서 북한이 승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신념체제이자 표준화된 사고양식을 ‘대미 승리의 제도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⁶⁵⁾ 북한에서 푸에블로호의 호명과 이를 통한 대미 승리 인식

의 공고화는 제도화의 수준으로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제도화의 전개 과정이나 북한에서 다른 사례에서 활용했던 제도화의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푸에블로호는 북한에게 대미 승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향후 북·미관계가 좋아진다면 푸에블로호는 북한이 미국에 줄 수 있는 ‘선물’로 포장되어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북·미관계를 기늬해볼 수 있는 척도로써 북한의 푸에블로호 활용에 관심을 가져보자.

■ 접수: 2월 26일 / 수정: 3월 22일 / 채택: 3월 29일

65)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인지 과정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규칙, 습관, 일상적 처리 과정 등으로 본다. 염재호, “국가정책과 신제도주의,” 『사회비평』, 11권(1994), 20쪽; 권기현, 『정책학의 논리: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 (서울: 박영사, 2007), 127~128쪽.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말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 교육도서출판사, 『공산주의 도덕(고등중학교 제3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 _____, 『공산주의 도덕(고등중학교 제5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2).
- _____, 『조선력사(고등중학교 2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00).
-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리성철·리만렬·강설경, 『우리식 사회주의는 주체성이 강한 사회주의』(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2).
- 백과사전출판사, 『광명백과사전』, 제3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9).
- 외국문출판사, 『위인 김정일』(평양: 외국문출판사, 2012).
-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우리당의 선군정치』(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조성철, 『김정일 장군의 사회주의 재생재건전략』(평양: 평양출판사, 2001).
- 황만청, 『항일무장투쟁이야기: 보천보의 메아리』(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7).

2) 논문

- 전인평, “평양의 눈보라,” 『조선문학』, 제11호(2000).
- _____, “평양의 눈보라,” 『통일문학』, 제4호(2006).
- 조수희, “함장의 웃음,” 『조선문학』, 제1호(1996).

3) 신문

『로동신문』.

4) 기타 자료

- 조선중앙TV,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빛내이시려>(2013.8.7).
-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록영화촬영소 편집, <기록영화- 미제 무장간첩선 푸에

블로호의 말로(20분)>(평양: 조선중앙방송위원회 기록영화촬영소, 2000).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권귀숙, 『기억의 정치』(서울:문학과지성사, 2006).

권기현, 『정책학의 논리: Lasswell 정책학의 현대적 재조명』(서울: 박영사, 2007).

남수영, 『이미지시대의 역사 기억』(서울: 새물결, 2009).

버네이스, 에드워드(Edward Louis Bernays), 『프로파간다: 대중 심리를 존중하는 선전전략』, 강미경 옮김(서울: 공존, 2009).

베번, 로버트(Rob Bevan), 『집단 기억의 파괴』, 나현영 옮김(파주: 알마, 2012).

서 훈, 『북한의 선군외교』(서울: 명인문화사, 2006).

애플, 마이클(Michael W. Apple), 『교육과 이데올로기』, 박부권·이혜영 옮김(서울: 한길사, 1985).

올릭, 제프리 K.(Jeffrey K. Olick), 『기억의 지도』, 강경이 옮김(서울: 옥당, 2011).

왓킨스, 프레드릭 M. (Frederick M. Watkins), 『이데올로기의 시대』, 이흥구 옮김(서울: 을유문화사, 1997), 제3판.

임동원, 『피스메이커』(서울: 중앙북스, 2008).

전진성·이재원, 『기억과 전쟁』(서울: 휴머니스트, 2009).

정일형, 『유엔과 한국문제』(서울: 신명문화사, 1961).

최완규, 『북한의 국가 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서울: 한울, 2001).

케이, 하비(Harvey J. Kaye), 『과거의 힘: 역사의식, 기억과 상상력』, 오인영 옮김(서울: 삼인, 2004).

크로포드, 돈(Don Crawford), 『북한 335일』(서울: 서광문화사, 1970).

허시, 허버트(Herbert Hirsch), 『제노사이드와 기억의 정치: 삶을 위한 죽음의 연구』, 강성현 옮김(서울: 책세상, 2009).

2) 논문

김민환, “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서울: 문화과학사, 2003).

류길재, “1960년대 말 북한의 도발과 한미관계의 균열,” 『박정희시대 한미관계』(서울: 백산서당, 2009).

염재호, “국가정책과 신제도주의,” 『사회비평』, 11권(1994).

이신재, “푸에블로호 사건이 북한의 대미 인식과 협상전략에 미친 영향”(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재봉, “세계의 반미주의: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증오 받는 나라’가 된 배경과 과정,” 『한국동북아논총』, 제35집(2005).

임재학, “미국의 대북한 군사개입 억제요인 분석: 푸에블로호 사건과 8·18 사건을 중심으로”(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전미영, “평양 한복판에 ‘미제문화’ 연주토록 한 북한의 모험,” 『통일한국』, 3월호(2008).

정성윤, “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과 미국의 위기정책결정”(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정영철, “북한의 반미: 이태올로기, 문화, 그리고 균열,” 『신아세아』, 제18권 2호(2011).

홍석률, “1968년 푸에블로 사건과 남한·북한·미국의 삼각관계,” 『한국사연구』, 제113호(2001).

3)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통일뉴스』.

4) 기타 자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3. 국외 자료

1) 단행본

Brandt, Ed, *The Last Voyage of USS Pueblo*(New York: Norton Company, 1969).

Bucher, Lloyd, *Bucher: My Story*(Garden City, N.Y.: Doubleday, 1970).

Lerner, Mitchell B., *The Pueblo incident: a spy ship and the failure of American foreignpolicy*
(Lawrence, Kan.: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2).

Michishita, Narushige, *North Korea's Military-Diplomatic Campaigns, 1966~2008*
(London: Routledge, 2010).

Mobley, Richard A., *Flash Point North Korea: The Pueblo and EC-121 Crisis*
(Maryland: Naval Institute Press, 2003).

Murphy, Edward R., *Second in Command*(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1).

2) 논문

Lerner, Mitchell B., "Mostly Propaganda in nature: Kim Il Sung, the Juche
Ideology, and the Second Korea War," *Working paper #3*(Dec. 2010).

Radchenko, Sergey S., "The Soviet Union and the North Korean Seizure of the
USS Pueblo: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 Working Paper*
#47(Jul. 2011).

Schaefer, Bernd, "North Korean 'Adventurism' and china's long Shadow, 1966~
1972," *CWIHP Workng Paper #44*(Oct. 2004).

North Korea's the Politics of memory and Recall of the Pueblo

Lee, Sinjae(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It is well known fact that North Korea use the USS Pueblo in anti-American education. But It is not studied why North Korea recall the Pueblo and how to use the Pueblo for the anti-American. This study focuses on why and how North Korea utilized the Pueblo for means and purposes of anti-American education.

In the early 1990s, North Korea has brought to the Pueblo.

The results of the study, North Korea's recall of the Pueblo North is divided into four phases. Phase 1 was utilized in the field of literature and the arts. Phase 2 is exhibiting the Pueblo as tangible goods. Phase 3 is to be unified with the military-first politics. Phase 4 is exhibiting the Pueblo in war victory memorial museum in the Pyongyang.

North Korea's recall of the Pueblo is not simply the dimensions of

anti-American education. It is related to the overcome of crisis and justification of Kim Jong-il regime. Since the 1990s, the emergence of Kim Jong-il regime faced the destruction of the Soviet Union and the socialist countries and food crisis in North Korea. At that time, Kim Jong-il need new policy for internal crisis overcome and as a means of regime justifying. The Pueblo was emphasized for a anti-American education as material. The Pueblo was utilized as a unified military first politics by Kim Jong-il. The degree of the North's victory toward U.S. take for granted has been developed to the stage of consolid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ed the one side of the North Korea's politics of memory by utilizing the Pueblo. Not only North Korea was utilized the Pueblo as material anti-American education, but also the real need was utilized for Kim Jong-il system maintenance. And it was confirmed consolidation of victory toward U.S.

Keywords: North Korea, USS Pueblo, USS Pueblo incident, victory toward the United States, the politics of memory, Anti-American